



26일부터 일주일 간 첫 비공개 테스트를 진행하는 '뮤 오리진2'(왼쪽)와 16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김태영 웹젠 대표. 웹젠이 장르 다변화로 글로벌 시장 공략에 나선다.



사진제공 | 웹젠

명불허전 '뮤 오리진2'...해외로 눈 돌리는 웹젠

‘뮤 오리진2’ 국내 버전 처음 공개
향상된 그래픽·사용자 편의 눈길
스포츠·전략·경영시뮬레이션 등
다양한 장르 통해 해외시장 개척

웹젠이 킬러콘텐츠 ‘뮤 오리진’의 후속작을 국내에 선보인다. 이와함께 올해 장르 다변화로 글로벌 시장 공략에도 나선다. 웹젠은 16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뮤 오리진2’의 한국 서비스버전을 처음 공개하고 해외시장을 겨냥한 다양한 장르의 신작 게임도 함께 소개했다.

먼저 ‘뮤 오리진2’는 국내 서비스를 위한 답습작에 나선다. 26일부터 일주일 간 첫 비공개 테스트를 진행한다. 이날 처음 공개한 ‘뮤 오리진2’는 전편에 비해 향상된 그래픽과 정교하게 설계된 시스템과 편의성을 갖췄다. 수십 가지의 수호펫과 탈 것 등 콘텐츠도 풍성하다. 특히 크로스월드 시스템 등 게임 서버 간의 장벽을 허무는 장치를 도입해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의 강점을 높였다.

웹젠은 이와 함께 글로벌 게임포털 웹젠닷컴을 통한 글로벌 사업전략도 발표했다. 지금까지 주로 MMORPG에 치중했던 것에서 벗어나 올해부터 해외시장에 스포츠와 전략, 경영시뮬레이션, 소셜네트워크게임(SNG)

등 다양한 장르를 선보인다는 방침이다.

이런 변화의 첫 행보로 직접 개발한 모바일 골프게임 ‘샷온라인 골프’와 모바일 당구게임 ‘폴타임’을 통해 스포츠게임 시장을 공략한다. 두 게임 모두 전세계 게이머들이 실시간으로 대결할 수 있는 매칭 플레이를 강점으로 한다. 맥스온소프트와 함께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는 모바일 전략게임 ‘퍼스트 히어로’도 이날 공개했다. 전략의 재미에 영웅을 수집해 강화하는 역할수행게임(RPG)의 요소를 더했다. 캐나다 등 일부 국가에 소프트 론칭한 뒤 이르면 상반기 중 글로벌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판타지경영 SNG를 표방한 모바일 경영시

뮬레이션 게임 ‘큐브타운’ 역시 해외 시장을 목표로 웹젠이 처음 시도하는 장르다. 생산과 제조, 커뮤니티, 미니게임, 탐험 등에 RPG 요소를 더해 기존 SNG와 차별화를 꾀했다. 웹젠은 중국에서 천마시공 등 주요 파트너사와 함께 준비 중인 HTML5 기반 MMORPG와 일본에서 상반기 정식서비스를 앞둔 ‘뮤 레전드’의 소식도 알렸다.

김태영 웹젠 대표는 “해외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장르를 넓히고, 글로벌서비스 역량확보를 위한 다국어 게임서비스 환경을 확보해 왔다”며 “폭넓은 해외 게이머들을 회원으로 유치하겠다”고 말했다.

dionys@donga.com

도심형 ‘VR테마파크’가 뜬다

젊은 세대 새로운 놀이문화로 각광
집객 효과 높아 유통기업들도 동참

가상현실(VR) 콘텐츠가 새로운 놀이문화로 각광받으면서 서울 신촌 등 젊은 유통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도심형 VR테마파크를 지향하는 시설들이 늘고 있다.

KT는 얼마전 GS리테일과 함께 서울 창천동에 도심형 VR테마파크 ‘브라이트’를 열었다. ‘스페셜포스 VR’과 ‘플라잉 제트’ 등 약 50여

종의 VR콘텐츠를 선보였다. 양사는 직영점 및 가맹점 형태로 2020년까지 200여 지점으로 확대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지난달 말에는 서울 서교동에 한국콘텐츠진흥원이 구축한 VR테마파크 ‘VR스퀘어’가 오픈했다. VR복합문화공간으로 워킹 어트랙션과 탑승형 시뮬레이터, 기구물 VR, 플스케일 VR콘텐츠 등 총 27종의 VR콘텐츠로 구성됐다.

현대백화점그룹도 최근 IT사업부를 현대그린푸드에서 물적분할해 별도 법인 현대아이티



KT와 GS리테일이 서울 창천동에 문을 연 도심형 VR테마파크 ‘브라이트’.

사진제공 | KT

엔이 설립하면서 VR 전담 사업부를 새로 만들었다. 이 사업부는 현대백화점이 운영하는 현대아울렛과 유동 인구가 많은 전국 주요거점 등에 대규모 VR테마파크를 조성해 운영하는

업무를 맡았다. 현대백화점그룹은 이를 위해 국내 VR중소기업과 해외 VR전문업체들과 협업을 진행 중이다. 이르면 10월경 VR테마파크 1호점을 오픈할 계획이며, 향후 2년 내 10여 개 이상의 VR테마파크를 연다는 구상이다.

게임사 드래곤플라이도 최근 VR테마파크 사업진출을 발표했다. VR 전문 개발사인 리얼리티매직과 손잡고 ‘VR 매직 파크’사업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롯데백화점의 경우 지난해 10월 엘큐브 흥대점의 매장 개편을 하면서 3층을 ‘VR게임 체험존’으로 바꾸었다. 개편 3개월 만에 집객 효과가 300% 이상 늘어나는 성과를 거두자, 최근 아예 엘큐브 흥대점 전체를 게임 테마관으로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김명근 기자

편집 | 고창일 기자 ico@donga.com

한화생명 e스포츠팀 창단

LoL 게임단 락스타이거즈 인수

한화생명이 e스포츠 프로팀을 만들었다. 최근 들어 뜸했던 대기업의 e스포츠팀 창단이어서 팬들의 관심이 뜨겁다.

한화생명은 16일 ‘리그오브레전드’(LoL) 종목 프로게임단 락스타이거즈를 인수해 ‘한화생명 e스포츠(HLB)’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출발한다고 밝혔다. 락스타이거즈는 2015년 ‘LoL 월드챔피언십’(월드컵) 준우승과 2016년 4강에 올랐던 팀이다. 한화생명은 공식 창단에 앞서 1월 스폰서십을 맺고 선수단 활동을 지원해 왔다.

한화생명이 팀 창단까지 결심한 이유는 미래 잠재고객인 e스포츠 팬들과 좀 더 가까이 소통하기 위해서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e스포츠 관람객의 주 연령층은 10~35세(79%)로 젊다. 글로벌 마케팅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2016 롤드컵’ 결승의 경우 최고 동시시청자수가 4300만명을 기록했고, 대회 총 누적시청자는 3억9600만명에 달했다.

한화생명은 고객과 함께 하는 온라인 마케팅 이벤트를 통해 선수단과 팬이 함께 즐기는 문화를 조성하는 데 힘을 쏟을 계획이다. 선수들에게는 경기에 집중할 수 있는 안정적 환경을 조성하고, 복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제공할 예정이다.

정해송 한화생명e스포츠 단장은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에게 e스포츠가 새로운 주류 문화로 자리잡은만큼 프로팀 창단을 통해 이들을 대상으로 삶에 생동감을 더하는 한화생명만의 ‘라이프 플러스 문화’를 창출할 것이다”며 “기존 e스포츠 구단과 차별화된 정체성을 확립하고 장기적 지원을 통해 e스포츠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명근 기자

60년 전통
가마솥

곤지암  소머리국밥

소머리국밥 7,000원

도가니탕 10,000원

소머리수육 20,000원

곰탕 5,000원

육개장 7,000원

냉면+떡갈비 6,000원

업종전환 비용은 본사에서 선투자 하겠습니다

특보 창사 20주년 기념 혜택 (선착순 50명)
간판, 썬팅, 홍보물, 포스 등 ... 무상지원!

곤지암  소머리국밥 집으로 간편만 바뀔 대박나시고 성공하세요!

업종전환 비용
250만원 으로 **OPEN**

유사브랜드에 주의하세요 **NAVER** 곤지암 할매 소머리국밥

가맹점 모집 1588-3892

성공사례(마진율이 높음)

일매출 20만원~50만원 팔던 가게
고민끝에 간판 바꿔 업종변경으로
일매출 150만원~200만원

4월 오픈예정점

점촌점, 금남점(양주CC점), 상주점,
화성 봉담, 화성 향남, 창원, 성원3차, 오산LG점
당진 송악점, 문경점, 광탄점(서원밸리CC), 종로3가점

주방장 없이 초보자도 쉽게 창업/20여가지 매뉴중 선택

갈비탕, 장터국밥, 설렁탕, 뚝배기불고기, 순대국
내장탕, 감자탕, 소곱창전골, 소꼬리찜, 수육무침
소갈비살, 마늘보쌈, 김치찌개, 우삼겹...

270 호점 OPEN 가맹점 취급점